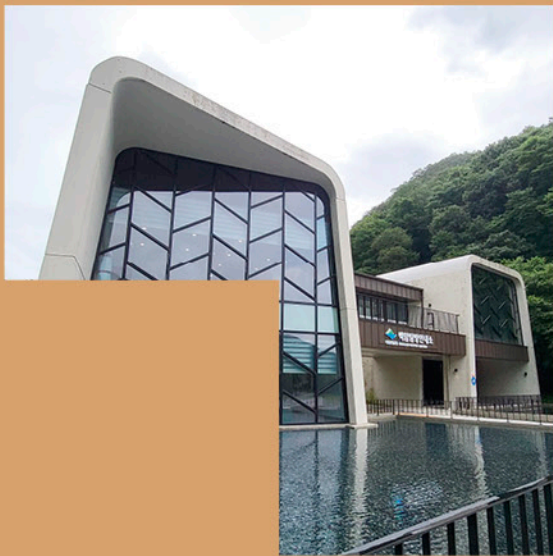




SARAZZING

시론 02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생각을 견지하기 어렵다

건축사 인터뷰 03

네모 안에 20년 나의 건축을 담다

전남 지역 뉴스 04-05

전라남도건축사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건축행정 현장 상담반 운영
전남 진도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 제공
전남 순천시, '2024 순천 문화유산 야행' 성료

전북 지역 뉴스 06-07

전북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JIA 가고시마회 방한단 전북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청, 주택건축과 내 공공건축팀 신설

광주 지역 뉴스 08-09

2024 자랑스런 광주 건축인 '천득염 교수' 추대
제2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개막식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려
제2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그림그리기 사생대회 개최

스케치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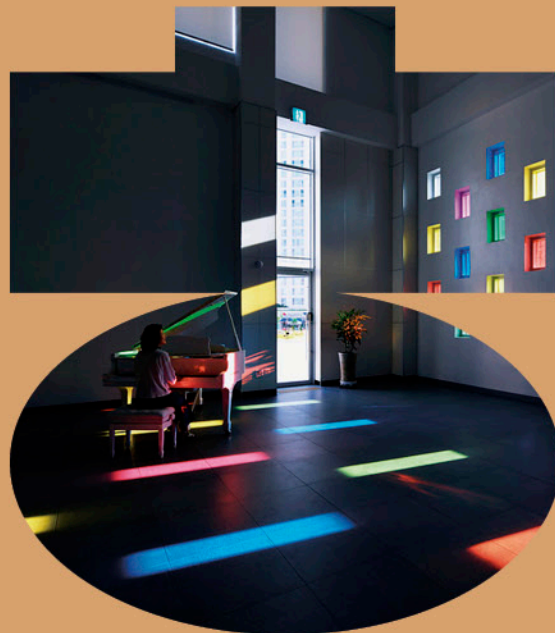
나만의 건축디자인 "스케치"로 이야기하다

답사기 11

[세 번째 답사] 노만포스터 포스터+파트너스, 서울도시건축전시회

독자광장 12

한 편의 시 _ 세월은 구름처럼
한 장의 사진 _ 순천시립신대도서관 물의 정원 출입구
책 소개 _ 건축의 정석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4.09.178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생각을 견지하기 어렵다



조형장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메종
jecree@hanmail.net

無恒産以無恒心(무항산이무항심)이라, '생업이 불안정한 이에게 일정한 바른 정신을 강요하는 건 백성을 속이는 것'이라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진영을 떠나 나라도 그렇고 협회도 그렇고 지금 공통의 최우선 순위 관심사는 경제적 안정이다. 세기적 불황 속에 경기는 위축되어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기 이를 데 없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경제 불황의 타격은 언제나 건설에서 시작되고 신음 속에 비틀거리다 상처가 아물고 회복하는 시기는 항상 가장 늦다. 과거 IMF와 금융 위기는 시식코너와 예고편에 불과할 뿐이라는 괴담도 흥흥히 떠돌고 있다. 가만히 앉아 대책도 없이 고민과 걱정만 하고 있을 수도 없으니 무언가 해결책이나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은 분명하다.

거창하게 눈 돌릴 것도 없이 나 자신은 지금까지 힘든 시기, 위기의 순간에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부터 되돌아보기로 했다. 육십갑자 돌아온 세월 속에 여태껏 문 닫지 않고 목숨은 부지하고 있으니 무언가 되짚어 볼 만한거리 몇 개는 있지 않을까? 작정을 하고 곰곰이 생각에 잠겨보니 애처롭게도 경제적 안정만을 고려할 때 한 번이라도 좋은 시절이 있었나 싶다. 비참하게도 '늘 힘들고 어려웠다'가 결론이다. 그 가운데 건축사 시험에 합격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맞은 IMF 위기 사태는 그 시절 모두가 그랬지만 가장 열정적으로 일해야 할 나이에 감당키 어려운 시련을 경험케 했다. 바로 개업하지 않고 대표 건축사가 한 분 계시는 사무실의 소속 건축사이긴 했으나 아시안게임 경기장 설계경기 당선과 책임감리전문회사 설립으로 사세 확장에 들떠있던 터라 그 상실감은 더욱 컸다. 끝까지 남아 내부의 소용돌이를 정리하고 남은 직원 몇 명과 축소된 경기장 설계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사이, 끝이 없을 듯했던 긴 터널도 서서히 지나고 있었다. 잃은 만큼 얻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며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며 견디던 시간이었다.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사이 존경하는 스승님을 만나 다시 공부에 매진하게 된 기회가 생겼기도 했다. 이후 약간의 시련이 있을 때마다 완전히 포기하거나 손을 놓지 않은 이상, 마냥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게 세상의 묘한 이치와 균형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획을 다져온 일은 의외로 무산되기 일수였지만 어제까지 꿈도 꾸지 않았던 일이 이루어지거나, 뜻하지 않은 기회가 주어지는 운칠기삼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런 가운데 나 자신이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을 꼽으라면 그동안 자유로운 영혼을 탈피하고 협회라는 조직 속으로 한발 깊게 들어온 일이다. 처음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인맥마저 넓힐 수 있으니 흔한 말로 가성비 캡이었다. 그러면서 다시 부산국제건축제에도 관여하며 건축사 위상 확립이라는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열심히 뛰어다니기도 했다. 이후 비로소 깨달은 한가지, 건축사는 결코 유아독존 독불장군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전문직의 권익을 대변하며 지켜내는 협회라는 울타리의 소중함을 굳게 확신하게 된 시기였다. 물론 각자의 작품성과 차별화된 능력, 가치에 대한 부분은 별개다. 분야 각고의 노력과 신념으로 이루어낸 전문가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과 인정에 대하여는 개개인의 역량과는 별개로 단합되고 치밀하게 조직된 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연륜이 쌓이면서 분에 넘치는 자리와 책임이 주어질수록 우리가 심하게 과소평가 되어 있고, 우리의 작업이 극히 평가절하되어 있음을 더욱 뼈저리게 느꼈다. 시절이 태평연월이면 절실함이 사라지고 적당한 홀대에도 무디어지게 마련이다. 위기의 순간, 어쩌면 지금이 다시 한번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절대적 기회의 시간일지도 모른다. 온갖 반칙과 덤핑, 개인주의를 벗어나 협회의 일원으로 함께 무언가를 바꾸지 않으면 스스로 몰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때다.

두서없는 신변잡기가 길었으나 경험에 빚대어 다시 강조하면 현 상황을 바꾸는 일은 협회를 이끌어 가는 몇 사람들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새롭게 선출된 본회 회장을 비롯한 각시도 건축사 회장의 공약 첫 번째 슬로건이 한결같이 '생존권 사수' 건축사의 경제적 안정이다. 누구 하나 헛발질하는 위인이 없다는 사실이 다행이기도 하고, 전국 건축사들의 통일된 신념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제대로 된 대가, 제때 받기가 첨두의 실현과제인 셈이다. 민간대가 기준 법제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인 것이다. 無恒心(무항심)인 상태에서 어찌 문화와 예술을 논할 것이며, 無恒産(무항산)인 환경에서 어찌 미래 세대들에게 비전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 어려운 시기이긴 하나 마냥 처저 있을 때만은 아니다. 새로운 집행부와 한 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

恒産以恒心(항산이항심)이라,
생활이 안정되어 바른 생각을 견지하기 위하여...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편집인 허만수
부편집인 장기섭, 임현정, 육광돈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임태형
전담기자 김종문
편집위원 정영진, 김미리, 김종원, 강성구, 최기성, 설혜순,
오선화,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6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 | |
|-----------------------|--------------------------|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구독료입금계좌 |
| •하단광고 : 400,000원 |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 원고마감 : 매달 5일
-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6 / gjkira@empas.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영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네모 안에 20년 나의 건축을 담다

- 스퀘어 건축사사무소 박성욱 건축사와의 만남



박성욱 건축사 (광주)

건축문화사랑 3면 '건축사 인터뷰'는 광주·전남·전북 지역 건축사들의 걸어온 이야기를 전한다. 삶의 에피소드와 건축사무소 창업기 및 앞으로의 포부를 동료이자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전하여 소속감과 연대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Q. 건축사사무소 개소 소감,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퀘어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성욱 건축사입니다. 1985년생 소띠입니다.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04학번으로 학사, 석사, 그리고 2016년 박사 수료를 하고, 건설회사에서 1년, 인테리어회사에서 2년, 설계사무소에서 4년 근무를 하고 건축사를 2020년 12월 30일에 취득하여 2021년 4월 4일에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실장님 한 분과 함께 사무소를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건축사사무소 이름명을 만들 때 어떤 의미를 두고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건축의 기본 형태는 사각형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건축관련 다양한 분야의 경험 속에서 여러 종류의 건축형태를 경험한 결과, 사각형의 형태일 때 건물의 마감, 디테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여러 요소들, 예를 들면 가구 같은 것들이 가장 간결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각형의 형태, 우리가 면적을 재는 단위인 제곱미터, 그리고 광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SQAURE' 라는 영단어가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건축을 대하는 다양한 입장들 속에서 가장 이견이 없는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성, 효율성, 관리성, 지속가능성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Q. 건축사로서 어떤 꿈과 비전이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학생시절을 포함하여 벌써 20년째 건축을 하고 있지만, 매년 새롭게 어려운 게 건축인 것 같습니다. 같은 종류의 건물이라도 입지 조건, 클라이언트의 생각, 제한된 자본 등 다양한 변수들을 전부 해결해 줘야 하는 게 건축인 것 같습니다. 꿈과 비전을 정립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먼 듯하네요. 꿈이라면 자본력이 충분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정말 하고 싶은 건축을 원 없이 해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꿈이니까 좀 세속적으로 꾀보려 합니다. 비전은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직원의 행복은 월급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월급 많이 줄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지 않는 회사, 이게 직원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회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실제 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건축사 업무 시 불편 사항 등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건축사 업무대가가 신진 건축사들에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급 받는 직원일 때와 달리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신진 건축사들은 업무의 강도, 도면의 양, 용역 기간 등이 감이 잘 안 오기도 하고, 당장 일은 받아야 하는데 표준업무대가를 말하면 클라이언트가 다른 회사에 일을 맡길까 걱정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준업무대가가 기준이 법적으로 강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건축사 업무를 강제하는 내용은 많으나, 건축사의 권리를 찾아주는 법적 테두리는 많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비용으로 건축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업무 역량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Q. 디자인이나 설계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시지 만약 디자인이나 설계도면이 구상이 잘 안되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업무마다 마음가짐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중요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감기한을 잘 지키자입니다. 설계는 건축에 있어서 건물주의 의지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건축사로서 마감기한을 못 맞추게 되면, 추후 일정

들이 모두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설계과정 중에 다양한 문제가 발견될테지만, 이를 건축주에게 명확히 설명하여 마감기간을 조정하여 마감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사업비를 지키자입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예쁘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사업비 내에서 이것을 맞추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내역서를 직접 산출하는데, 대규모의 경우 금액 조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반면, 소규모는 정말 사업비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내역서와 매칭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역서를 할 줄 알면 정말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시공사와 협의를 할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자들은 도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역서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즐기자입니다. 건축은 출장의 연속입니다. 출장 가면 그 지역 맛집 꼭 찾아가고, 하늘도 보고, 건축주와 시공사도 친해지고, 이 모든 것이 즐거워지도록 하려 합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야 디자인과 구상도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설계하시면서 특별한 에피소드 있을까요?

전남 구례에 개인 주택을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모녀 두 분이서 생활하실 주택이었는데, 사이트 조사를 하러 갔을 때 풍광이 너무 좋아서, 설계비를 경비만 받고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건축주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많이 받을 수도 없었구요. 하지만 설계과정 중에 사이트에 갈 때마다 힐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건축주께서도 광주에서 구례까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저를 많이 고마워하셨고, 지금도 운운 낀 풍경을 사진 찍어 보내며 안부를 여쭙 주십니다.

Q. 본인이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은 건축물이 있으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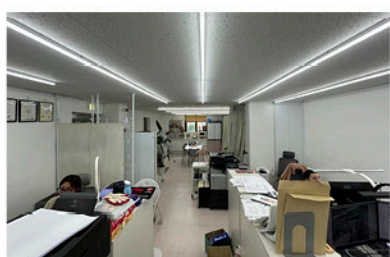
2018년부터 2021년 초까지 근무했던 설계사무소에서 제가 담당했던 자동차공장 설계프로젝트입니다. 국내에 자동차공장 설계를 해본 경험자는 거의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트 크기만 가로 1.06km, 세로 0.68km였습니다. 단위가 km로 쓸 만큼 거대한 면적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한 업무는 부속동 전반을 설계하고, 전체 건축허가까지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한 달 만에 허가를 득하였는데 정말 무슨 정신으로 허가를 득했는지, 제 가장 큰 경험이고 커리어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도 신차가 나오고, 새로운 라인이 증개축 되고 있는 공장인데, 광주에서 이 공장에 대한 모든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지라 주요 업무를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

Q. 건축사 외에 다른 꿈이 있으셨나요.

제가 사무실에서 지인들을 종종 초대하여 요리를 해먹습니다. 요리를 대접하고 이야기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나이 들어 은퇴를 고려할 때 즈음, 요즘 이모카세가 유행이던데, 삼촌카세로 작은 음식점을 차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Q. 앞으로의 포부는 어떻게 되실까요. 앞으로의 계획과 선·후배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건축경기가 안 좋습니다. 포부라는 것도 주머니가 두둑할 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풍량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노를 놓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여유를 가지고 멀리 보고 나아갑시다. 건축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정보를 교류하고, 나누고, 밀어주고 이끌어주며 이 난관을 헤쳐 나갑시다.



스퀘어 건축사사무소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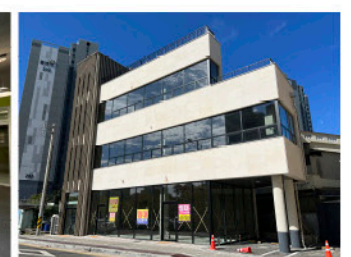
목포헤인여고 진로상담카페



목포헤인여고 진로상담카페



무안백제고등학교 학교공간조성



광주 북구 중흥동 근린생활시설

백암탐방안내소

최우길 건축사 / 디오 건축사사무소
전남 광양시 무등길 27-1
Tel. 061-792-4891



대지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46번지 / 대지면적 : 3,000㎡ / 건축면적 : 449.52㎡ / 연면적 : 813.36㎡ / 규모 : 지상 2층
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공업무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노출콘크리트, 커튼월, 파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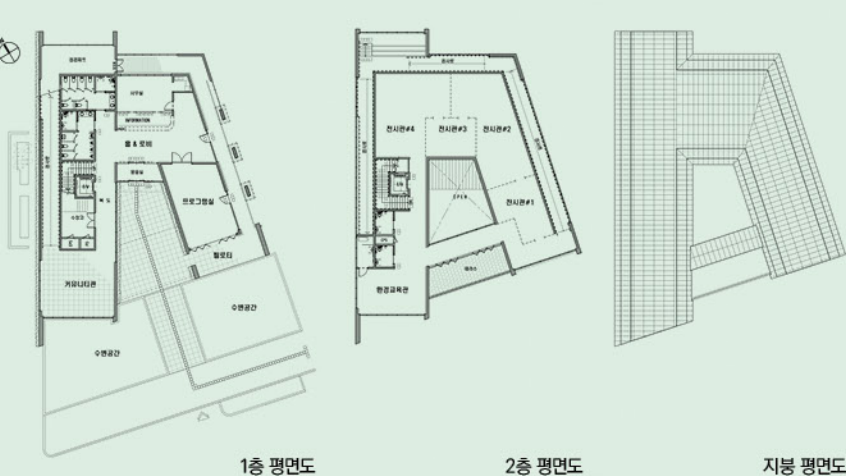
자연과 문화의 보전에 기반한 생태관광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된 기반시설의 부족과 기존 탐방안내소의 노후화로 내장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신축 탐방안내소를 계획하게 되었다. 신축 백암 탐방안내소는 기존의 단순 안내가 아닌 탐방지원센터 기능을 확보하고 각종 체험공간, 전시공간 등을 통하여 내장산 국립공원을 알리고 탐방객들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배치 및 공간을 구성하였다.

백암 탐방안내소는 국립공원 안내소 최초로 층간 경사로를 계획하였다.

배리어프리(B.F)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만든 결과 물로 공간에 제약없이 모든 탐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사로 내벽면에는 각종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외벽면은 커튼월로 구성하였다. 특히 건물 배면부 경사로 중간지점에는 휴게공간을 만들어 있는 자리에서 내장산 백암봉(白鶴峰)을 그대로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였다.

건축적 MASS 개념으로 백암산(白巖山)의 '白'을 평면적으로 형상화하고 백양사 쌍계루(雙溪樓)를 모티브하여 탐방안내소 입구에 수변공간을 만들어 탐방객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끝으로 백암 탐방안내소가 내장산을 알리고 탐방객들의 편한 쉼터가 되었음을 하는 바람으로 설계를 하였고 의도한 바 잘 운영되고 있음에 모든 사람에게 좋은 기억의 장소가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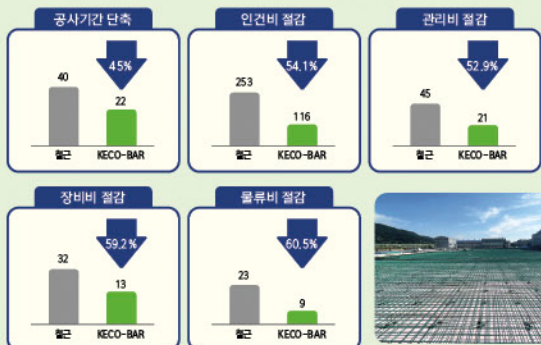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KCMT와 SK 에코플랜트가 함께 만들고 세계로 수출하는
친환경 신소재 철근 KECO-BAR



"조달청 우수/혁신 제품 지정" (국토부 핵심전략산업 선정)

- 국토교통부, 국가인증센터 GFRP 철근 설계, 시공 국가건설기준 KDS, KCS 등재 (2024.01.)
- 한국도로공사 GFRP 철근 설계 의무화 지침 하달
- 공장, 물류창고, 주차장, 축사, 염분 많은 바닷가, 지하 건축물 최적화
- 초기 투자 20%, 건물 유지보수 52% 절감 (한국도로공사 데이터)



연약지반 (주)파나시아 공장 통영 스타박스 함평 경서중공업 공장 교각 기초부 절곡근 적용

KECO 호남 총판점
광 주 권 061-371-1233
전 북 063-223-8800
서부 목포 010-3638-1882
동부 여수 010-2925-7777
제 주 도 010-2981-4444
건축주/건축사/시공사/
대리점 문의 환영

전라남도건축사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건축행정 현장 상담반 운영

상반기부터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상담 및 자문...



(사진 = 무주 관광호텔 건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2024년 상반기부터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입주기업들의 행정, 기술분야의 건축문제 등을 상담하고 자문해 주는 '건축행정 현장 상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건축행정 현장 상담반'은 기업이 건축허가, 시공

등과 관련하여 절차 이행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규정에 대해 현지에서 관련 전문가가 상담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지원 시책이다.

상담반은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원 중 컨설팅 분야 전문 건축사와 광양경제청 건축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분기별로 1회 운영 중이며, 상반기에는 4월에 울춘·해룡산단에서 진행하여 2개 업체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담 내용과 관련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상담기업이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규제개선 및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전남 진도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 제공

허가 대상을 제외한 가설건축물, 임시건축물에 한해 지원 가능

전남 진도군 민원봉사과 건축안전팀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도면의 작성을 건축담당 공무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지원해 준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 축조를 위한 신고 대상 도면은 일반적인 민원인의 경우 도면작성이 익숙하지 않아 건축사사무소 등에 비용을 부담하고 작성해 왔다.

이에 건축안전팀은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도면의 무료 작성 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등 군민만족 서비스 제공으로 건축행정 신뢰 구현에 크게 이바지하겠다고 한다.

도면의 무료 작성 대상은 '허가 대상을 제외한 가설건축물'로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농막,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등이며, 신청 방법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건축안전팀 공무원에게 의뢰하면 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자 자체 시행하는 서비스로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시, '2024 순천 문화유산 야행' 성료

문화유산과 건축의 만남...



순천시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순천 향동과 매곡동 일원에서 문화유산과 건축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2024 순천 문화유산 야행'에 약 4만 8,000여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이번 문화유산야행은 기존의 팔마비~순천향교 구간을 넘어 매산동 일원까지 확장해 선현들이 남긴 전통 문화유산과 100년 전 선교사들이 남긴 근대 의료, 교육, 선교 유산의 가치를 조명하는 차별화된 시도를 선보였으며, 총 15여 종의 체험 프로그램이 건축과 유산의 의미를 담아 짜임새 있게 구성됐다. 또 건축과 문화유산, 정원을 주제로 3가지의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야행은 100년 만에 민간에게 개방된 매산동선교마을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 기념식 공연이었다. 공연은 고라복 선교사를 화자로 해 조선의 사람들과 만나는 독백으로 시작됐으며, 100년의 세월이 담긴 선교, 의료, 교육의 발자취를 보

여줬다. 매산동 일원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근대 유산의 가치를 낭독 퍼포먼스, 영상, 오케스트라 앙상블, 레이저 아트, 설치 미술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지역건축사회, 순천시와 격월간담회 실시

지난달 20일 생태비즈니스센터 세미나실에서 건축행정 발전 논의



순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정운기)는 지난달 20일 생태비즈니스센터 세미나실에서 건축사 및 건축 관계 공무원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행정 활성화와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의 일환으로서 실질적인 수요자인 관내 건축

사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관 상호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격월간담회를 실시했다.

순천지역건축사회 정운기 회장은 "순천시와 순천건축사회 간의 건축 관련 규제개선과 행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순천시 건축행정뿐만 아니라 순천시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시, '수산물 안전센터'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2026년 세계섬박람회에 맞춰 준공을 목표...



(사진 = 여수시 제공)

여수시는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소비위축을 해소하고 유해 물질로부터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돌산읍 우두리 일원에 수산물 안전센터를 지상 3층, 연면적 900㎡ 규모로 건립하기 위한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했다.

총 7건의 작품을 접수했으며 건축 관련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강효정 건축사(건축사사무소 강남)가 제출한 공모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우선협상권이 부여되며, 시는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에 용역 결과물을 도출한 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립 중인 수산물 안전센터가 제1의 수산도시 여수의 상징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회원동정

- 입회
 - 정의진 건축사 / 차담건축사사무소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85-3, 2층
 - 신아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가인아케텍츠 / 전남 나주시 교육길 13, F동 206호
- 퇴회
 - 김호신 건축사 / (주)우영기술단 건축사사무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열무정로 12-1, 2층
- 변경(소재지)
 - 박수현 건축사 / (주)가연 건축사사무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남등길 9-14, 2층
 - 김울관 건축사 / 미도 건축사사무소 / 전남 목포시 옥암로 124번길 3, 4층
- 변경(상호)
 - 김현종 건축사 / 로템나무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교육길 13, e-1동 306호
- 부고
 - 윤석호 건축사 / (주)디아이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8월 1일(목)
 - 손미애 건축사 / 예림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8월 7일(수)

삼흥종합건설 사옥

강미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5길 10, 2층 / Tel. 063-288-9380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578와 5필지 / 대지면적 : 2,912㎡ / 건축면적 : 523.05㎡ (주1동 : 382.84㎡, 주2동 : 140.21㎡)
연면적 : 801.70㎡ (주1동_661.49㎡, 주2동_140.21㎡) / 규모 : 주1동_지상 2층, 주2동_지상 1층 / 건폐율 : 17.96% / 용적률 : 27.53%
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마감 : 노출콘크리트, 점토벽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향후 5년간의 건축 및 도시 정책 방향 설정



(사진 = 전라북도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전북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향후 5년간의 건축 및 도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전북의 건축 환경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행복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 더 특별한 전북건축’이라는 비전 아래 3가지의 목표를 제시했으며, 먼저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 녹색 건축 기술 도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공간환경 조성으로 혁신적인 건축문화 선도, 참여형 건축문화 확산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북도는 6개의 전략과 12개의 실천과제, 24개의 세부단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계획 수립을 담당할 용역 수행기관의 발표와 함께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주민들도 자유롭게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열린 장으로 운영되었다.

김광수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건축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전북자치도의 건축 및 도시 분야 정책 수립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내실 있는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JIA 가고시마회 방한단 전북 방문

3박 4일 일정으로 한·일간 건축문화의 이해와 건축

일본 건축가협회 구주지부 가고시마회(이하 JIA 가고시마회, 회장 Toru Ajisaka)에서 5명의 대표 방한단이 지난 8월 2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일 간의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와 건축정책의 변화, 건축기술의 발전 등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하여 격년으로 상호 방문하는 방식으로 교류하던 중, 한·일 관계 변화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이하 전북건축사회, 회장 이성열)가 2023년 10월 일본 방문을 계기로 재개되었다.

JIA 가고시마회 방문단은 전통성당, 경기전, 전라감영 등 한옥마을 일원과 군산



근대역사문화지구, 익산 송림사 및 함열 삼부자 고택, 전북대학교 내에 한옥 건축물 등 전북에 소재한 전통 및 근대 건축물을 둘러보았으며, JIA 가고시마회 측에서는 전북대학교 정연재에서 ‘일본의 전통 및 근대 건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였다.

JIA 가고시마 방문단의 대표인 Toru Ajisaka 회장은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과 근대 건축자산을 직접 살펴본 후, “한국은 일본에는 없는 온돌 문화가 특별하였고, 그 외 건축 양식들에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으나, 일본의 전통 건축물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역사의 흐름에 따라 양국 건축물은 상호 간에 영향을 준 것 같다”며, “한국의 역사와 건축물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해준 전북건축사회 이성열 회장과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건축사회 이성열 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협회 간의 협력과 우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양국 협회는 건축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가고시마현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교류 협력 도시로, JIA 가고시마회는 도청 건설교통국(국장 김광수)을 예방하고 건축문화 발전 방안을 협의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주택건축과 내 공공건축팀 신설

공공건축물 품질을 높이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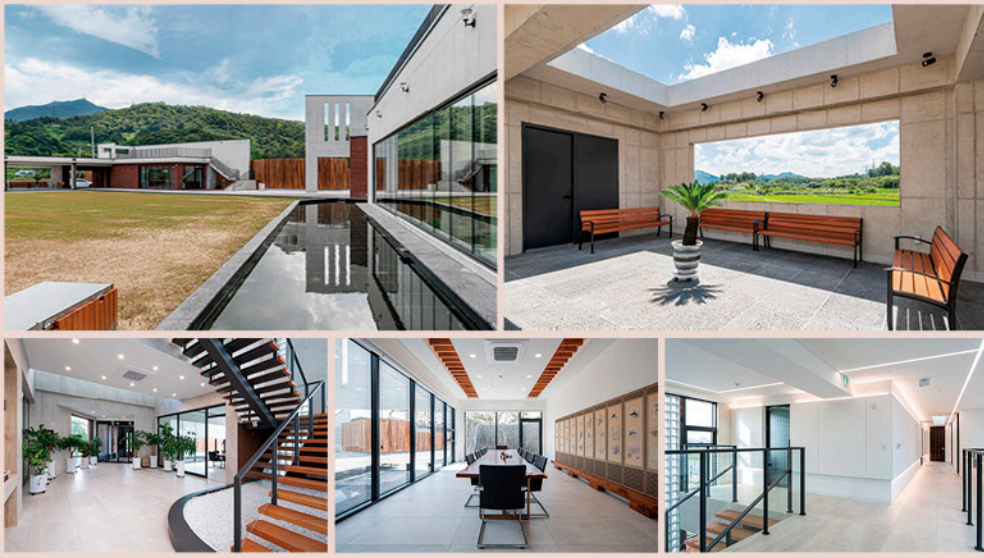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청은 공공건축물 건립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택건축과 내에 공공건축팀을 신설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전문인력과 기술 전문성의 부족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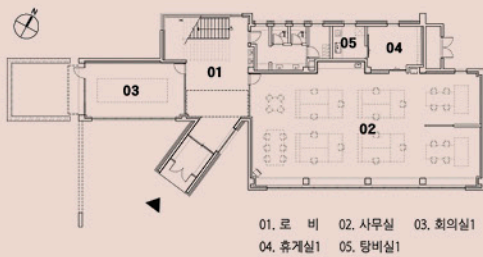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담 부서 설치가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이에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공공건축팀은 50억 원 이상 규모의 대형 공공건축 건립 사업의 설계용역, 공사감독, 준공검사까지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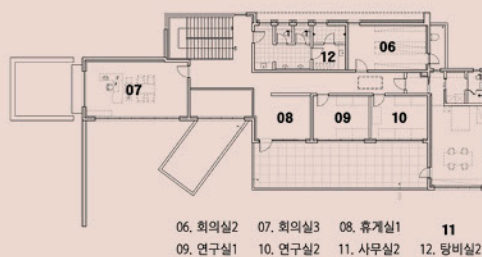
공공건축팀은 도립국악원,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대규모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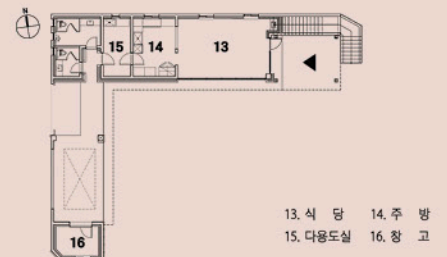
삼흥종합건설의 사옥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주변의 자연 및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이다. 사옥이라는 건축물을 통해 설계자인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공간 설계·직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 기업문화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남향 배치, 넓은 테라스, 앞마당을 통해 일터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러한 디자인이 단순히 '좋은 느낌'을 주는 것을 넘어서, 업무의 효율성과 직원들의 삶의 질까지 향상 시키는 원동력이 되리라 믿는다.



주1동 1층 평면도



주1동 2층 평면도



주2동 1층 평면도

축 사업의 공사와 설계 업무를 해당 부서에서 이관받아 정상적으로 수행 중이며,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전북연구원 건립,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도립미술관 증축 사업도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설계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계획 수립부터 설계, 공사, 유지관리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을 발간해 도청 전 부서 및 시·군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때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건축팀 신설로 각 부서에서 추진해 온 공공건축물 건립 시 발생했던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2024년도 건축사실무교육 실시

오는 9월 25일(수) 전주 바울교회에서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이성열 회장)는 오는 25일 전주 바울교회 내 바울센터 2층에서 2024년도 건축사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전문교육으로 1교시 '건축물관리계획의 이해와 수립'(한국부동산원 김선복 부장), 2교시 '그린리모델링 전 과정의 이해'(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이건호 교수), 3교시 '학교건축설계와 안전인증기준'((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송병준 본부장)의 강의를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교육 6시간이 인정되며, 해당교육은 24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 완주군건축사협회와 간담회 개최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논

전북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완주군청 전략회의실에서 '완주군건축사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부의장을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한순철 건축과장, 오성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성 건축허가팀장, 정경모 개발행위팀장 그리고 완주군건축사협회 김선희 회장 및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건축 인·허가 처리 개선 방안, 건축 관련 업무 협조사항 등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처리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건축사협회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실무와 협의부서 간의 소통 미비로 일정이 지연되는 부분으로 인해 건축주의 고충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건축 민원을 최소화해야 할 방안 마련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완주군건축사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건축허가 처리기간 미준수, 건축허가부서와 협의부서 간의 소통 부재, 담당공무원의 업무 처리 미숙, 건축물 사용승인 시 불필요한 설계변경 요구 등 현안민원을 제기했다.

김재천 부의장은 "완주군 발전성 측면에서 신속한 건축허가를 통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민원인 전화 독촉, 대면 접촉 등 인허가 부서 담당공무원의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회원동정

•입회

- 추성원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이로삼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9, 3층 334호
- 박일두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터 / 전북 부안군 부안읍 군청길 14, 2층
- 김효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진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82, 401호

•휴업

- 조상민 건축사 / 상민 건축사사무소 / 전북 익산시 평동로 725

•변경(소재지)

- 국 현 건축사 / 행복 건축사사무소 / 전북 군산시 검다메2길 10-3, 1층
- 여규재 건축사 / 영진 건축사사무소 / 전북 군산시 미장안9길 14, 202호

•변경(상호)

- 형덕웅 건축사 / 무주 아키브 건축사사무소 → 무주 건축사사무소

•결혼

- 장영기 건축사 / 예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9월 7일(토)

•부고

- 소태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태호건축 / 장모상 - 8월 3일(토)
- 전승택 건축사 / 노아 건축사사무소 / 장모상 - 8월 6일(화)
- 김선희 건축사 / SM 건축사사무소 / 장모상 - 8월 23일(금)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반석 기조이앤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펄이초공법
침하지반보강/복원 로타리파일(헬리컬)
EcoSM 지반개량 강관압입파일
마이크로파일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 유 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동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서남열 건축사 / 신원 건축사사무소
광주 남구 독립로 169, 4층
Tel. 062-716-7151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336-3 B블럭 / 대지면적 : 599.00㎡ / 건축면적 : 252.42㎡ / 연면적 : 462.06㎡ / 건폐율 : 42.14%
용적률 : 77.14%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일반철골구조 / 주요마감 : T3알루미늄쉬트, 메달판넬, 드라이베트, 복층유리

2024 자랑스런 광주 건축인 ‘천득염 교수’ 추대
건축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관한 제2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행사 일환으로 진행된 2024 자랑스런 광주 건축인의 밤 행사가 지난 2일 어반브룩 2층 어반리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유창균 회장, 광주광역시청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을 비롯한 내외빈 약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축하를 시작으로 천득염 교수의 일대기를 담은 영상 상영과 추대패 전달식, 만찬 및 축하공연 등의 식순이 이어졌다.

천득염 교수는 1953년생으로 전남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하버드대학교 교토대학에서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전남대 교수로 35년간 재직하면서 후학양성과 건축역사 분야 연구에 매진하였다. 퇴임 후 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을 역임하며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보존과 전통문화교류를 위해 매진한 건축역사학자이다.

주요 저서 및 역서는 ‘백제계석탑의 조형특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불탑 관련 논문 30여편을 비롯하여 전체 11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저서로는 한국의 명원 소재원, 한국의 건축문화재 운주사, 전탑 등을 비롯해 ‘불탑의 아시아 지역 전이양상’ 시리즈를 5편까지 저술하였다.

또한 대한건축학회 특별상·학술상, 한국건축가협회 특별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정년 이후 현재까지 건축역사 관련 연구와 지역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제2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개막식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려
‘건축도시 산책 : 걷고 싶은 거리-가로경관’을 주제로 진행



광주광역시의 건축흐름과 다양한 시선을 만날 수 있는 제2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12일간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사)건축단체연합회 유창균 회장, 광주

광역시청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2024 자랑스런 광주 건축인에 추대된 천득염 교수, 대한건축사협회 정인채 부회장,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을 비롯해 내외빈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행사는 지역 건축사, 건축관련 교수 등 건축을 사랑하는 시민들,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모여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행사로 제28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품전, 광주건축사회원 작품전, 타시·도 건축작품전, 건축도시 그림그리기 수상작, 건축사진공모전 수상작,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수상작, 광주지역 대학 건축전공 학생 우수작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경기침체와 높은 이자율 영향으로 건축경기가 불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최된 문화제를 통해 건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전시는 올해 말까지 진행하고 있어 광주건축단체연합회 홈페이지 (<https://gjfika.org>)에 접속하여 관람할 수 있다.

제2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그림그리기 사생대회 개최
초등학교 고학년 최고상에 김지유, 이민아 학생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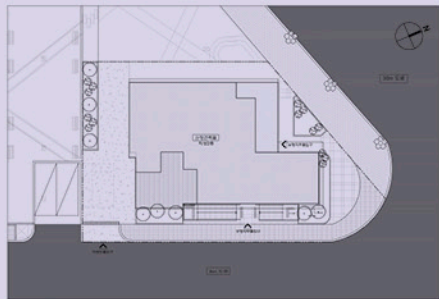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강필서)가 주관한 ‘제2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그림그리기 사생대회’가 지난 8월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최됐다.

“재미있는 도시 광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광주 지역 유치원·초등학생·학부모 약 7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초등학생 고학년 최고상 수상에는 방림초등학교 김지유 학생과 송학초등학교 이민아 학생,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진남초등학교 박서진 학생, 일신초등학교 조유찬 학생이 광주광역시교육감상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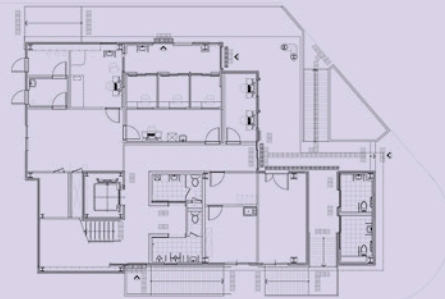
강필서 광주건축사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사생대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간직하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펼쳐 자신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여성건축사와 함께하는 “건축 영화 산책” 개최
롯데시네마 2관에서 아차:시대의건축, 2020 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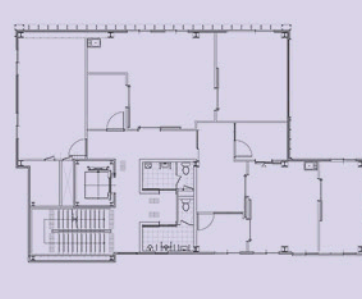
광주건축사회 여성위원회 박주현 위원장이 주관하는 ‘건축 영화 산책’이 지난 5일 오후 7시에 광주건축사회원 및 가족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동구 롯데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이제는 감기처럼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을 때 기존 보건소와 코로나 검사장 간의 격리공간의 필요성과 신속한 검사를 위한 선별 진료소의 필요성이 부각 되었다. 선별 진료소는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뒤섞이는 공간 특성상 감염 확산방지를 위하여 검사자 간의 동선 분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했으며 이를 위해 외부 공간과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수직적 공간 분리로 코로나 이후 시설 이용자의 복합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데시네마 2관에서 '아치:시대의건축, 2020' 영화 상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강필서 광주건축사회 회장은 “행사를 주관해 주신 박주현 건축사님을 비롯한 여성 건축사 회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서울국제건축영화제와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개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조선대학교,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졸업전시회

지난 9월 5일 조선대, 10일 광주대 개최...



(좌 = 조선대학교 / 우 = 광주대학교)

조선대학교 건축학과와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작품전이 지난 9월 5일(조선대), 10일(광주대)에 개최됐다.

먼저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작품전 개최식은 9월 5일 조선대학교 제1공학관 11층 홀에서 제78회 졸업작품전을 개최하고 우수학생에 대한 시상식과 작품전시관람을 진행했다.

광주대학교 건축학부도 9월 10일 호심관에서 제36회 건축전을 개최하고 졸업작품 전시회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한편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 장동원·정재한 부회장은 행사에 참석하여 격려와 함께 시상 및 축하,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다.

광산구청, '2024 광산아카데미 조병수 건축가 강연'

오는 26일 오후 3시... 광산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개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이 주최하고 인문연구원 동고송이 주관하는 '누구나 함께 상상하는 광산의 미래'를 주제로 각계 저명인사를 초청, 시민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인문학 소통의 장인 '2024 광산아카데미'를 지난 5월 영화감독 이창동 감독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매달 강연을 진행한다.

오는 9월 26일에는 조병수 건축가의 '막과 비움·거칠 속의 세련됨, 세련됨 속의



(사진 = 광산구청 제공)

무심함', 10월 17일에는 이형연 전남대학교 의대교수의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 축복으로 가는 길', 11월 21일에는 조웅준 도시계획디자인사의 '행복해지려면 도시를 바꿔라'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광산아카데미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광산구 평생학습포털 '배우랑게'에서 할 수 있으며 지난 강연도 다시 볼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산아카데미가 인문학적 사고 능력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힘을 기르는 소통과 배움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안준성 건축사 / 채움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무등로 255, 1층
- **전출**
- 김홍용 건축사 / (유)단 건축사사무소 / 전남 전출
- 정영진 건축사 / (유)단 건축사사무소 / 전남 전출
- **결혼**
- 김진형 건축사 / (유)송림 건축사사무소 / 차녀 결혼 - 9월 7일(토)
- 안길전 건축사 /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9월 28일(토)
- 김석호 건축사 / 시엠 건축사사무소 / 자녀 결혼 - 9월 28일(토)
- **부고**
- 이광천 건축사 / 동신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8월 14일(수)
- 유영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뜰 / 부친상 - 8월 21일(수)
- 이영진 건축사 / 창대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8월 25일(일)
- 김명수 건축사 / 태영종합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9월 2일(월)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발전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 선희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의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현) 대한변협 대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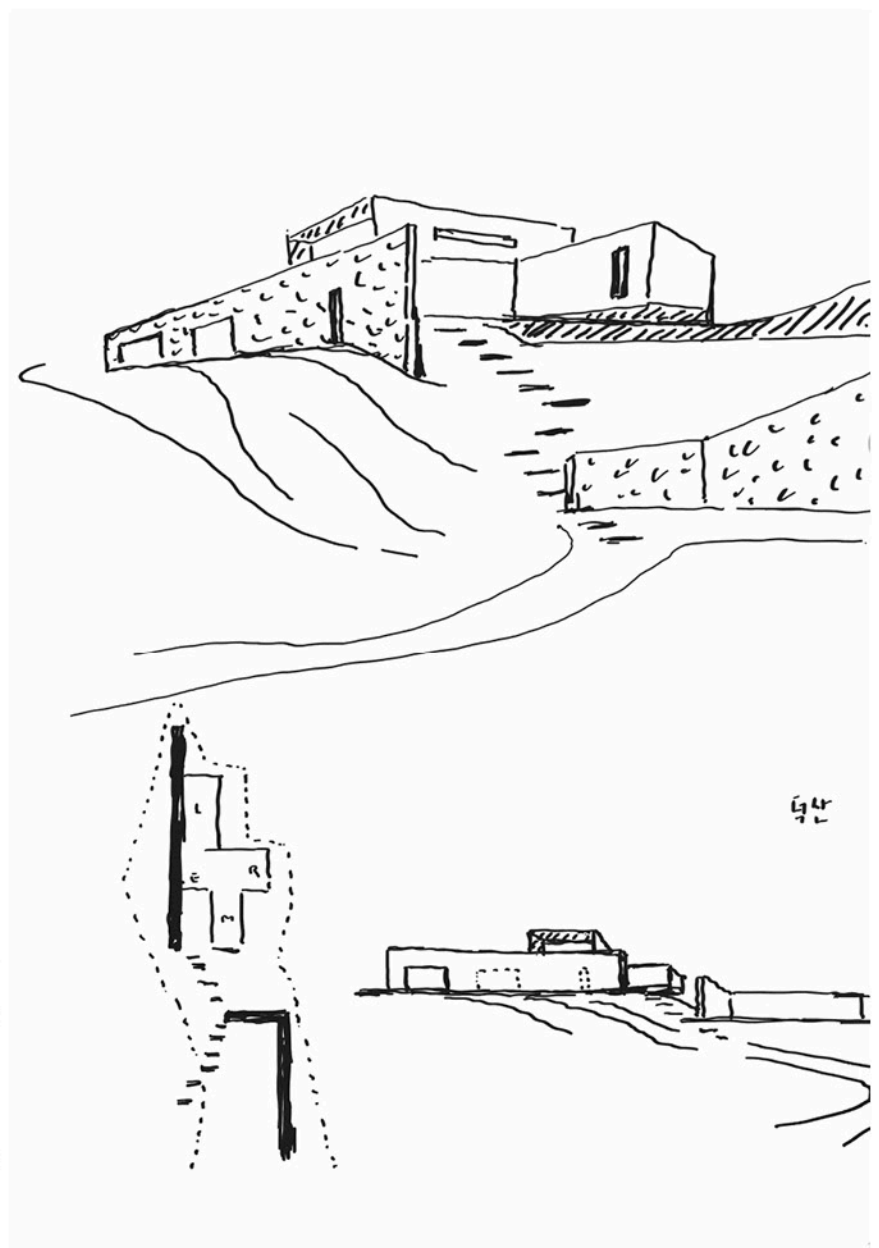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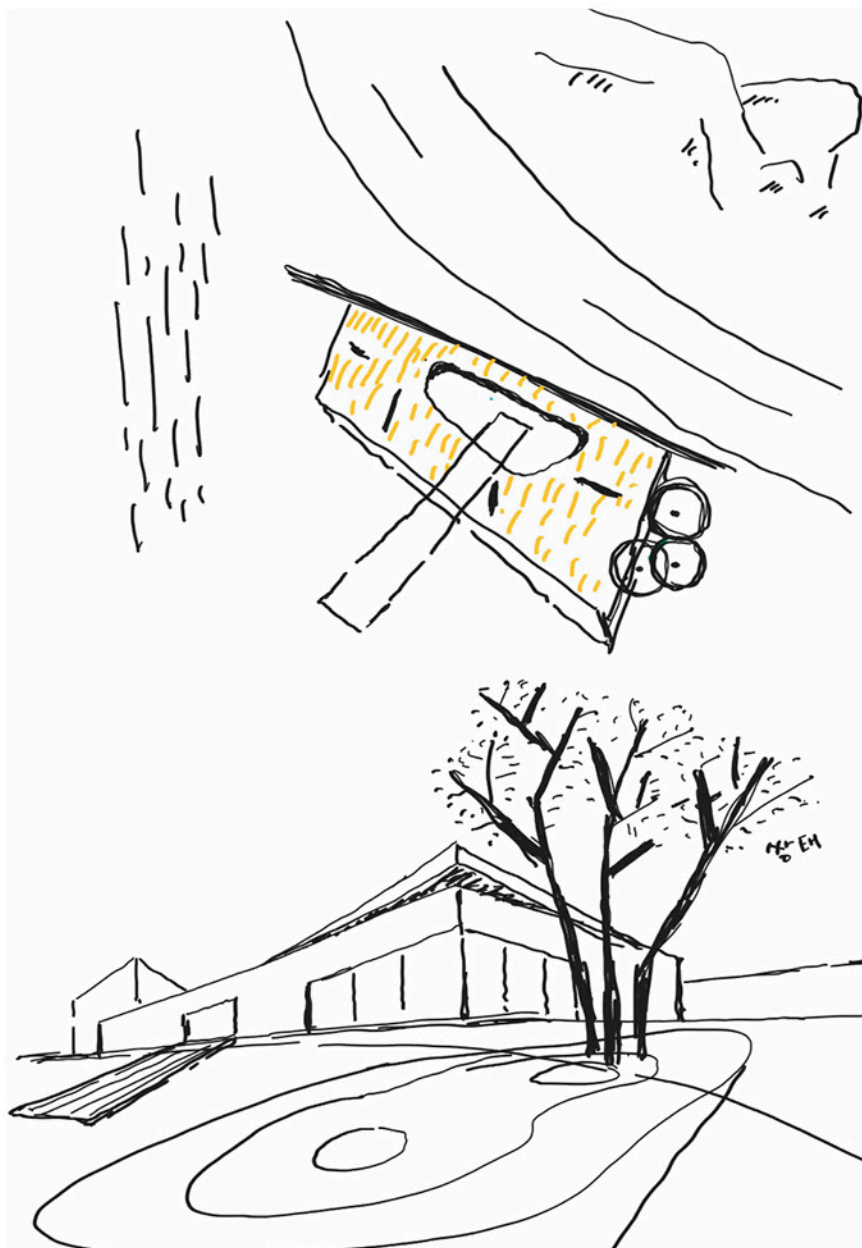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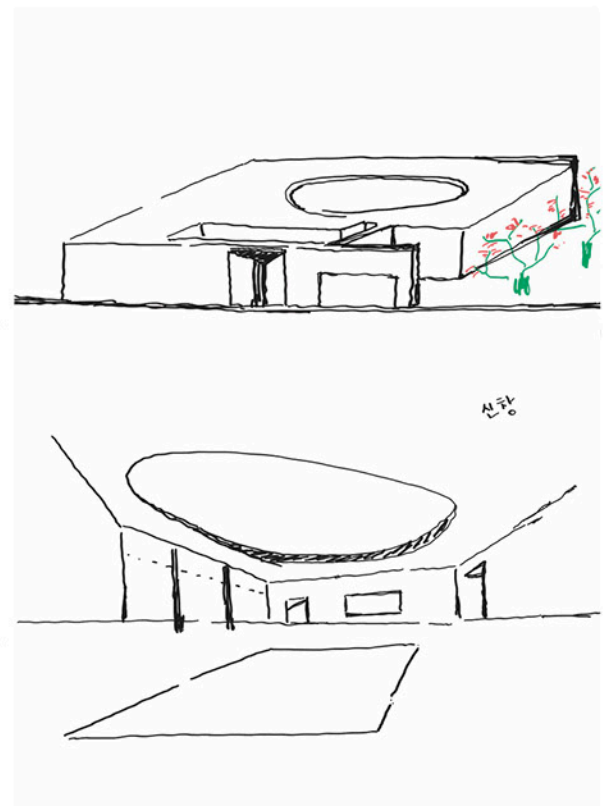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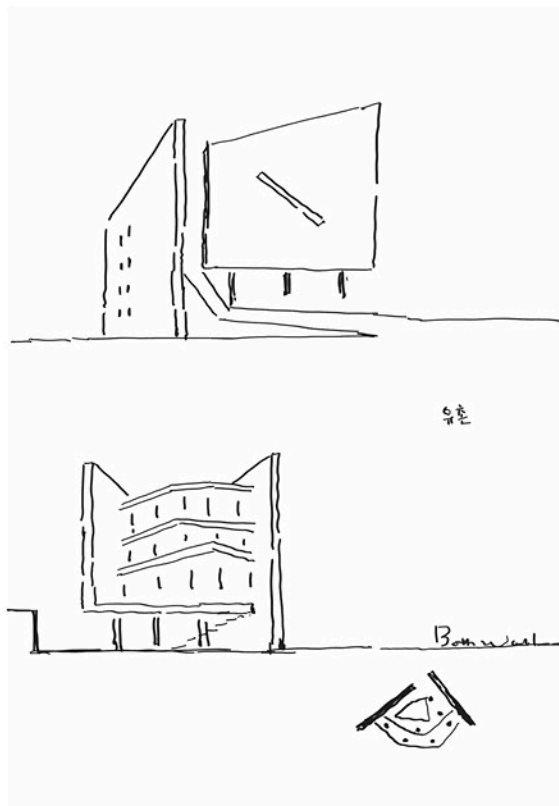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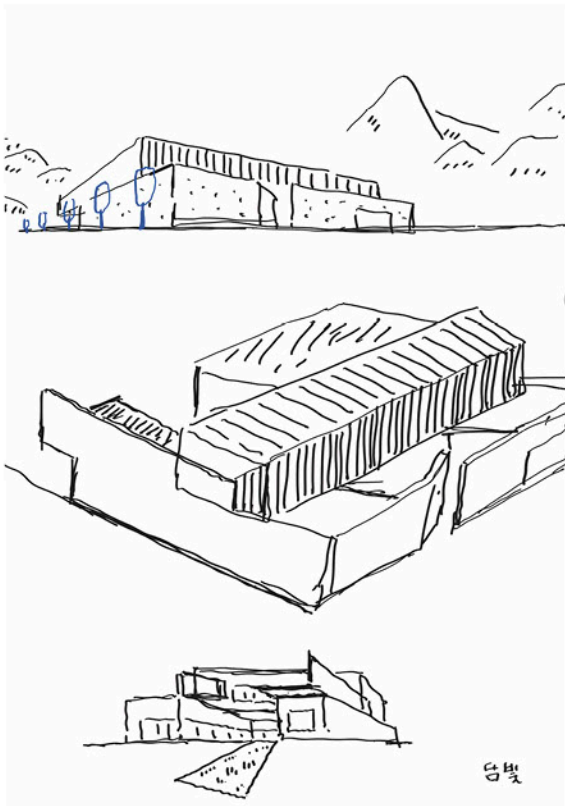
나만의 건축디자인 “스케치”로 이야기하다

건축디자인 프로세스 과정인 “스케치”

건축 디자인 스케치는 건축사, 시공사, 클라이언트와 디자인 방향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업무 효율성 향상, 다양한 배치 방안을 실험해볼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그의 노고가 담긴 스케치를 통해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영감을 얻길 기대해 봅니다.



고경호 건축사



[세 번째 답사] 노만포스터 포스터+파트너스, 서울시건축전시회

#1 아침인사

2024년 7월 20일 토요일
광주광역시 건축사 답사동호회 3번째 답사일
노만포스터를 보러가는 날
아침에 눈을 뜨고 시간을 보니 6시 20분.. '헉...'
고양이 세수하고 옷을 손에 잡히는 대로 걸치고...
내 차로 뛰어갔다. 운전을 하고 출발지로 달렸다.
6시 50분 도착. 다행히 출발시간인 7시 전에 도착했다.



김진우 건축사
바오 건축사사무소

#2 출발

출발장소는 상무지구 태양광주차장
7:00 칼같이 출발했다. 칼 같으신 총무님.
출발과 함께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회원인사를 시켰다. 첫답사인 신입회원이 있
기도 하고해서... 신입회원 인사를 시키는구나 했다.
그런데 일반회원 모두 인사를 시켰다. 한명도 빠짐없
이 앞으로 나와 인사를 시켰다.
내 차례... 7번째 내 차례가 7번째였다. 7번째 회원 당
첨되었다고 총무님이 외쳤다.
뭐 좋은 건가 잘 못 들어서 앞으로 가서 뭐가 당첨된
거냐고 물었다. 답사 기행문 당첨이라네. 뭘 날벼락인지... 정신을 못차리고 인사말
도 버벅 버벅하고 자리로 들어왔다. 기행문 당첨이라니... 어떻게 쓰냐... 조금 부담
이 되었다.



오전 6시 30분 답사버스

#3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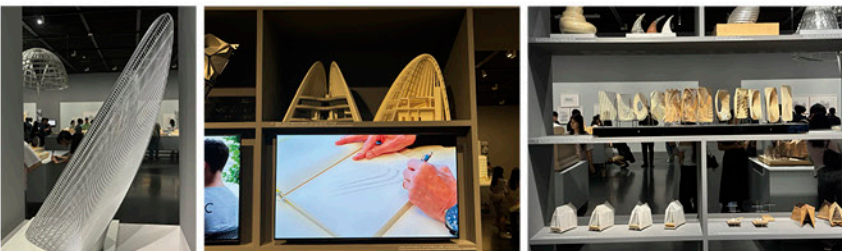
서울도착 시간은 11시.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다.
식사 후 우리는 각자 노만포스터 전시가 있는 서
울시립미술관을 향해 도보로 이동했다. 서울시
립미술관 입구에 도착하여 조금 기다렸다.



#4 노만 포스터 포스터+파트너스



미래 긍정, 전시회장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포스터+파트
너스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었다. 그
들은 도시와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건
축적 시도를 한 것 같다. 특히, 건축물
의 형태와 기능의 조화를 이루는 동시
에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디자인은 현
대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이 느껴진다. 하지만, 정말 저렇게 해야하는 걸까 지속 가
능성을 가장한 또 다른 파괴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과해 보이
기도 한 너무 멋진 건축이다. 엄청난 에너지 소모가 필요할 것 같은... 건축가의 욕
심, 인간의 욕망을 포장하기 위한... 하지만, 너무 멋있다... 넘을 수 없는 벽이 느껴
지는 듯, 강한 충격이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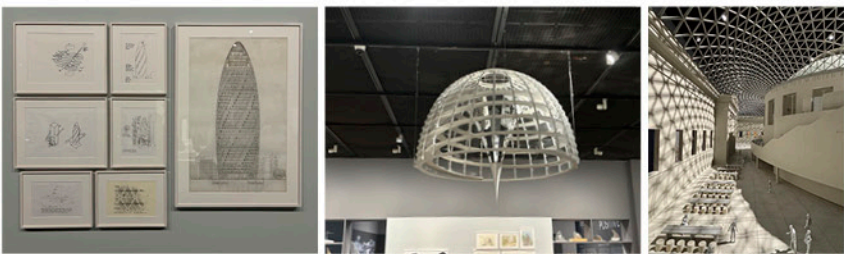


전시모형

전시모형

전시모형

전시된 작품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런던의 30 St Mary Axe와 독일 국회의사
당 프로젝트였다. 30 St Mary Axe는 그 독창적인 형태와 구조적 혁신으로 유명하
다. 이 형태가 도시적 맥락에 맞느냐는 다른 문제로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단순히 외관의 독창성뿐만 아니라, 내부의 자연 채광과 환기를 극대화하
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점에서 그들의 건축 철학이 잘 드러나는 것 같다.



런던의 30 St Mary Axe

독일 국회의사당

영국박물관 대중정



자이더 국립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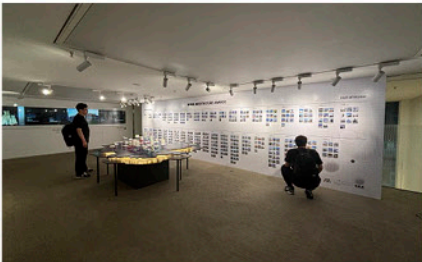


자이더 국립 박물관

전시회에서는 포스터+파트너스의 설계 과정과 철학을 상세히 설명하는 패널들과 모
형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그들의 디자인이 어떻게 구체화 되고 실행되는지
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기술적 도전과 창의적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전시회를 통해 노만 포스터와 그의 팀이 건축에서 혁신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
는지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 그들의 작업은 단순한 건축을 넘어, 사회와 환경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노만 포스
터 전시회는 건축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었으며, 지
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건축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전시회를 통해 건축적 성장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기를 기대한다.

#5 서울시건축전시관

서울특별시 건축상 41회까지 수상작
이 나열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야기
했다. 1회 수상작이 좋아보인다고...
과거의 것으로 치부했던 것들에 대한
생각. 노만포스터 전시에서 보였던 과
거 건축의 잔상이 연결되는 듯했다.
생각의 폭이 시간의 나열이 길어지고
있음이 느껴진다. 어쩌면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무시한 과거로 현재를 되보시킬 수
도 있다는 인식이 시간의 나열로 생겨나고 있다. 아니면 머릿속에서 시간이 접혀 과
거와 현재가 1대1로 대응하는 것일수도 있다. 서울특별시 건축상 방을 나와 공동주
택작품 전시공간으로 이동했다. 도시를 이렇게 아파트로 계속 채우는 게 맞는 것인
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파트공화국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파빌리온 전시. 아
파트로 채우고 빈곳은 파빌리온으로 채우고... 채우고 채우고 아름답게? 채우는 것
에 집중하는건 아닌가... 그런데 그 도시 공간의 질이 매우 높아질 것 같지 않다.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



공동주택 전시모형



파빌리온 사진전시

#6 집으로



제3차 7월 정기답사 단체사진(서울시립미술관 앞)

한 편의 시 _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세월은 구름처럼

태초부터 정해진 숙명일까
어쩌다 텃줄을 달고
세상에 나온 운명

눈 뜨면 아침을 지나
어느덧 저녁이 돌아오니
세월 따라 나뉘는 인생
길가에 굴러다니는 낙엽처럼
정해진 운명은 아니라네

생각지도 못한 이 세상에
갑자기 태어난 생명
알지도 못한 이성을 만나
한평생 울고 웃고 지나다가
친척은 아니지만 친구도 되어
가까운 이웃도 된다네

한번 지난 젊음 시절 다시 오지 않고
말없이 바뀌는 사계절만 바라보니
흐르는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하루하루 먹어가는 아침과 저녁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은
만질 수도 없는 나이뿐이라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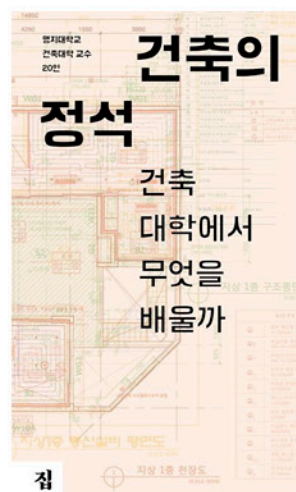


책 소개 _ 김다현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건축의 정석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20인 / 집 / 2021. 11. 15.

〈건축의 정석〉이라는 책은 '건축을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건축대학 교수 20인의 '춘철강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진로 정보 안내 사이트인 커리어넷에서 건축학과는 "역사, 문화, 예술, 인문학적 지식과 건축 관련 전문적 지식까지 종합적인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라고 소개하면서 주요 과목으로 건축과 사회, 건축미학, 건축설계, 건축시공학, 건축조경 등이 있다고 안내한다. 건축은 인문학계열도 아니고 공학계열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술계열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렇듯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가볍고 포괄적으로 다룬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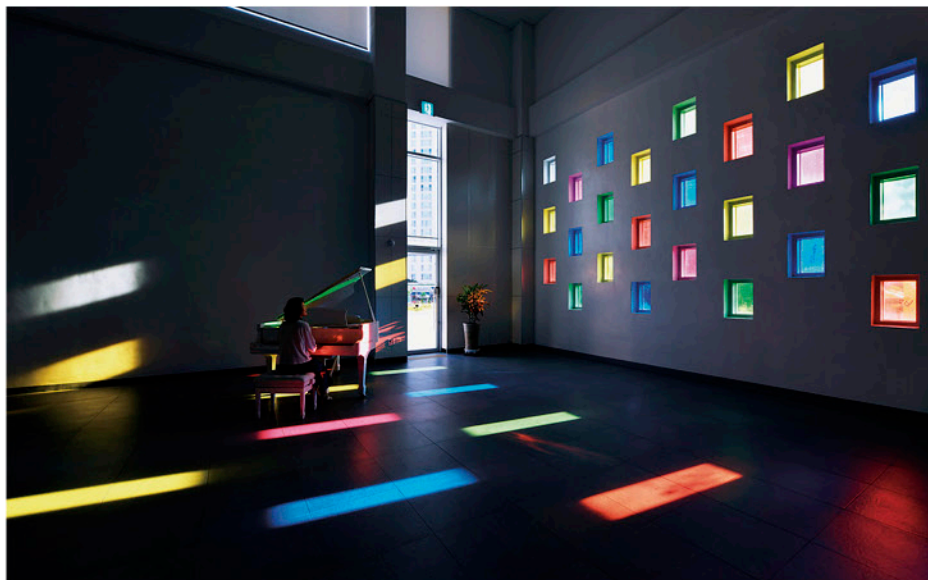
목차를 살펴보면 설계 영역, 커뮤니케이션 영역, 역사이론 영역, 행태 문화 영역, 도시/주거 영역, 구조 영역, 환경 영역, 건설 영역, 실무 영역, 공간 디자인 영역, 건축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의 집필을 맡으신 교수님을 보면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수업에서도 책 내용과 비슷한 수업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

건축은 쉬운 듯하면서 어려운 분야이다. 예술인지 공학인지 불분명한 분야이며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명확한 대답을 하기 어렵다. 그리고 건축에는 건축설계뿐만 아니라 건설, 시공, 대지, 환경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 책은 그 많은 분야 중 내가 흥미가 있는 분야가 어디인지 생각해 보는 역할을 한다. 나도 다른 학교 건축학과에 재학 중이지만 이 책을 읽으며 내가 어디 분야에서 흥미를 느끼고 어떤 건축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내가 재학할 때 배웠던 설계 수업들이 다시 생각 나기도 하였고, 많은 공감이 되기도 하였다.

〈건축의 정석〉이라는 책에서는 실무영역에서 건축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함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해주며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직종처럼 건축가 역시 건축설계 용역을 하는 서비스업 직군이라는 점 또한 놓치지 않고 알려준다. "3층 규모의 집을 짓는데 대략 몇 장의 도면이 필요한지 가능하실 수 있나요?"라는 질문은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접할 일이 거의 없는 구조도면, 각종 배관 및 설비도면, 토목 관련 도면까지 모두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다. 책의 표지에 사용한 숫자와 기호로 가득한 도면은 실제 판교에 지어진 3층 규모의 집 '운하담'의 구조와 배관 및 설비 도면을 중첩한 것이라고 한다. 〈건축의 정석: 건축대학에서 무엇을 배울까〉는 설계, 커뮤니케이션, 역사이론, 도시/주거, 구조, 환경, 건설, 실무, 공간 디자인 등 10개 영역, 50여 과목, 5년제로 구성된 명지대학교 건축대학의 수업을 책 한 권으로 옮겨 놓았다. 교수 20명의 '춘철 강의'와 함께 사용한 이미지는 가능한 학생 작품으로 사용했는데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건축가의 모습을 갖추어가는지를 잘 보여준다.

우선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들이 쓰셔서 재학생들이 읽으면 학교생활 하는 데 꿀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그렇게까지 답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가볍게 예비 건축학과생들이 읽기 좋을 것 같다. 건축학과에 흥미가 있는 분, 건축학과에 들어왔는데 막상 무엇을 배우는지 모르는 분, 건축학과에 다니면서 건축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겠는 분 모두가 보기 좋은 책이라 추천해 주고 싶다.

한 장의 사진 _ 이동희 교수 작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순천시립신대도서관 물의 정원 출입구

전라남도 순천시 / 2024년 5월 10일